

2022년 01월 30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8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455(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요한일서 3장 11~24절(신약p.391)

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 말씀선포 / 가인과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며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두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 1. 미워하며 살았던 가인을 소개합니다.

- 본문 12절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요한은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악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도리어 미움과 폭력을 드러냄으로 결국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러한 가인은 아우인 아벨을 미워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요한은 가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동생의 행위가 자기보다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12절 다시 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듯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것에 불편함과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꺾을 박해를 미리 경고하시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미움과 폭력은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세상의 적대감과 적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폭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시기하여 그들을 험담하거나, 성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겐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고 하신 것을 성도는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모습으로 들어나 열매를 맺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인과 대조적으로

#### 2.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 가인이 선택한 미움과 폭력의 정반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가인이 의로운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자라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신 분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 선언함으로 말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말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씀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보면 물질을 나누어야 하고,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 중에 유일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유한양행의 창업자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손녀에게 준 1만 달러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읽었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 같지만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길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453(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 폐 회 / 주기도문